

합천지부 돼지고기요리 강습회 이모저모

취재 : 추 용 진 기자



□ 심사기준 및 인사말을 하는 합천지부장

본회 경남 합천지부(지부장 : 하수갑)는 봄철을 맞아 미각을 돋구는 돼지고기의 요리개발을 보급하고,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돼지고기요리 강습회」를 개최했다.

관내의 16개 중학교와 5개 고등학교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돼지고기요리 강습회는 합천지부에서 가사실습용 돼지 1두씩(총 21두)과 보조재료, 교재 및 기념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직접 돼지고기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강습회는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실습위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홍보 및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되었고 신세대층에 알맞는 요리 개발 보급을 통해 차세대 소비문화를 주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특히 행사기념품 및 돼지를 상징하는 물품제공으로 돼지의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고 지역양돈인들이 돼지사육 및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 행사는 지역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합천군수, 합천교육청 교육장, 군의회의장,



□ 강사의 지도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아라고 학생들



□ 돼지고기 요리 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아라고



□ 도서를 증정하고 있는 하수갑지부장-합천여중



□ 실습한 요리를 시식하고 있는 참석 내빈

합천축협장을 비롯한 양돈인 다수와 학교 자모회 회원 약 100명이 참석하여, 실습으로 조리된 요리를 직접 시식을 통해 맛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학교장과 양돈농가 대표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선정·시상키로 하였으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학생들의 교육 및 지역민들과의 유대를 주안에 둔 행사이기에 포상품 상당액의 도서 4백여권을 야로여고와 합천여중을 포함한 각 학교에 기증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돼지고기 요리강습」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양돈인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주민이 양돈인을 대하는 느낌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정육점 경영주는 “지역내 돼지고기의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홍보에 일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 담당교사들은 “민·관의 일치로 지역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 놓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다양한 요리방법과 구미에 맞는 돼지고기요리를 널리 보급·홍보한 이번 행사가 양돈인들이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鎭)